



종교신문

The Religions Herald

2017년 7월 7일

발행처 종교신문 발행인 이현영 편집인 홍윤중 전화 02-2274-1971 Email jknewskr@naver.com http://jknews.kr 등록번호 서울 아 03128 창간일 2014년 5월 1일

독일에서 만난 남북 교회, '한반도 평화' 다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식 만남을 가졌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독일에서 만나 남북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제26차 총회를 개최한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이 총회 기간인 지난 7월3일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 등 대표 4명이 참석했으며, 남한에서는 WCRC 회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예장통합)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그리고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한 유럽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성희 예장통합 총회장은 환영사에서 "한반도는 일제강점 36년 이후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오늘날까지 주변 강대국에 둘러 쌓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은 마태복음 5장9절 말씀을 토대로 한 '온전한 평화를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설교 메시지를 통해 평화를 위한 남과 북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참다운 평화를 이 땅에 이룩해 내야 한다"며 "온전한 평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고서는 이 세상 어느 그리스도인도 평화의 도구로 부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는 64년 동안 긴장과 전쟁 상태의 위협에 빠져있고 군비 경쟁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드배치로 인해서 한반도가 큰 전쟁의 한 가운데 설 수 있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WCRC 회원들이 우리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북한 조그련이 WCRC 총회에 참석한 것은 1997년 헝가리 데브레첸 총회 이후 20년만의 일이다. 세계 교회 모임에서 만난 남북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예배에 앞서 지난 2일 베를린 돔교회에서 세계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독일 외교부 초청 행사에도 함께 참석했다.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짐을 모았다. 사진은 7월2일 독일 외교부 초청 만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왼쪽)과 남한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WCRC 총회에 참석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단의 모습.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독일연방정부와 주 정부, 독일복음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종교개혁세계박람회(자유의문)에서 한국 측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지금 한국 개신교회, 루터 시대 천주교회와 닮았다”

올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를 향해 진심 어린 쓴 소리를 하는 외국인 신학자가 주목받고 있다. 루터대 이말테(60·본명 말테 리노) 교수다. 그는 독일 출신으로 뮌헨대서 신학석사, 아우구스티나대서 신학박사를 받고 1992년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그는 작년과 올해 기독교 잡지 기고와 한국기독교복음주의총연합회(한복총),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등 초교파 단체의 종교개혁 관련 토론회 강사로 초청받아 활발하게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달 한목협 수련회에서 발표한 기초발표를 통해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루터 시대 천주교회와 닮았다”, “루터 시대 천주교회 면죄부가 사후 세계를 향한 것이었다면 오늘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현재의 더 좋은 삶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당시 발표에서 그는 “오늘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는 이미지 위기라기보다는 주로 본질 상실 위기”라고 진단하며 목회자 교육 개혁과 기독교 윤리 회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이말테 교수에게 듣는 한국교회의 현재(조선일보 인터뷰)

Q. 한국교회에 대한 첫인상은?

A. 루터교 예배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미국식 장로교 예배가 어색했다. 찬송가도 거의 새로 배워야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단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목사들도 너무 권위적이었다. 그러나 교인이 많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점은 좋게 보였다.

Q. 독일교회는 문제점이 없나?

A. 문제 많다. 교인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너무 약해졌다. 성경을 읽지도 공부하지도 않고, 예배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목사들도 교회 관리와 학교에서 기독교 수업을 가르치느라 바빠서 핵심 역할인 기도와 경건, 성경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2030년까지 현재 목사들의 50%가 은퇴할 형편인데 신학생, 즉 목사 후보생도 절대 부족하다.

Q. 한국과 독일교회의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A. 한국은 예배가 활발하고 감성적인데 독일은 예배에 진리가 있지만 수동적이고 약하다. 한국 교인들의 기도는 적극적·지속적이지만 이기적(?)이라면, 독일 교인들은 기도가 드물고 약하지만 정의와 평화를 위한다. 한국 교인들은 십일조를 내지만 독일 교인들은 수입의 1~2%만 나눈다.

끝으로 그는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희망적 요소도 많다”고 말했다. “교인들과 믿음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교회가 자신을 개혁하면 됩니다. 사랑의 계명을 바탕으로 스스로 올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기독교윤리 교육을 강화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선교 초기 개신교처럼 사회의 인정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출신 이말테 루터대학교 신학과 실천신학 교수



▲한목협은 지난달 20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한 제19회 전국수련회를 통해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의 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말테 교수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서 바라본 한국교회’를 주제로 기초 발제했다.



▲이말테 교수는 최근 세계성령증양협의회가 주최하는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제14회 시상식에서 교육자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와 메달을 받기도 했다.

선암사 소유권, 조계종-태고종 갈등 '악화일로'

순천 선암사 소유권 문제로 태고종과 소송 중인 조계종이 광주 서 대규모 '선암사 정상화 결집대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태고종은 "사법기관에 압력을 넣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은 7월6일 광주 무각사에서 '한국불교 교단사 확립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호남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집대회는 7월7일 고등법원 심리에 하루 앞선 것으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등 각 기관 대표와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 등 600여명이 운집했다.

조계종의 이 같은 대규모 결집대회는 지난해 7월 태고종이 조계종에 제기한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태고종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5대 법무법인으로 꼽히는 태평양과 화우가 소송을 맡았다.

이날 결집대회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선암사는 조선불교조계종 31본산의 하나로, 1962년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제20교구본사로 자리한 소중한 도량이다"며 "종단의 정상적인 관리에 대해 일부 세력은 법과 종무의 근거도 없이 사찰을 부당하게 점유해 대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고종 선암사는 2011년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억지스런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선암사를 넘어 한국불교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암사대책위 공동위원장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은 "태고종 측이 대처승 청산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종단 정화를 이끈 동산 큰스님과 청담 큰스님 호적 자료를 무단으로 입수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두 어른스님 또한 대처였고, 조계종도 대처가 있다고 태고종은 주장하지만 이는 역사왜곡을 넘어 종단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태고종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은 조계종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스님은 "두 큰스님 호적자료는 이미 우리 종단 내에 있는 것인데다 조계종은 '대처승은 중이 아니다'는 식의 자료를 법원에 수도 없이 제출했다"며 "조계종은 비구 250계를 받은 청정한 종단이 선암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계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엇이 청정하단 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태고종 선암사 총무 승범 스님은 조계종 결집대회를 간접적 실행행사로 평가했다. 스님은 "소송 과정 중인 이 시기에 대규모 결집대회를 여는 것은 사법기관에 압력을 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향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사법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보기엔 억지 주장이고 타당치 않은 얘기들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조계산에 위치한 천년고찰 선암사 전경. 한국불교태고종의 총본산이자 대한불교조계종의 제20교구 본사다. 태고종과 조계종의 오랜 분규 과정에서 선암사의 소속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으며, 사찰 재산을 둘러싼 대립으로 불상 바뀌치기에 이은 폭력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 6일 광주 무각사에서 개최한 '한국 불교 교단사 확립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호남 결집대회' 전경.

【종교신문 뉴스레터로 제공되는 뉴스는 취재 또는 인터넷 뉴스 발췌를 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를 비정기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02-2274-1971